

지역 매아리

부안군,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 27개소 선정... 국비 32억원 확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부안군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과 동진면 마을만들기 사업(신흥마을)이 선정돼 국비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4억원(국비 28억 원, 지방비 16억원), 동진면 마을만들기사업(신흥마을) 5억원(국비 3억 5000만원, 지방비 1억 5000만원)이다.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주산 문화센터조성, 주산체력공원 리모델링, 소나무 산책길 조성, 고산재 수변생태공원 조성, 중심가로환경정비(전선지중화 등), 지역관광 개선사업 등 기반사업이 추진되며 지역역량강화를 위해 주민교육 및 견학, 컨설팅 등도 시행된다. 동진면 마을만들기사업의 신흥 마을은 독거노인 보호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가가호호 마을 방송 시스템 설치, 안전 모니터링 서비스(CCTV) 구축, 독거노인 응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재해 상황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될 예정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주민과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거쳐 군과 주민이 합심해 적극 대응한 결과 값진 결실을 얻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고창의 '역사 1번지' 모양성 마을 변화 기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고창만의 색을 살린 지역 활성화 박차

고창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민선 7기 들어 추진하는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군은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국비 88억 포함 총 사업비 142억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창읍성 동문 일원에 농촌마을의 전원 풍경과 도시의 편리한 삶이 어우러지는 '역사·문화 1번지 모양성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분야 ▲기반시설 확충분야 ▲생활편익시설 설치 분야 ▲주민참여 및 역량분야로 추진된다. 거점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확보 사업은 중점 거점 확보사업으로 스마트 모양성마을 헬스건강센터이며 고창읍성의 역사를 담고 건강·문화·복지 시설로서 공동체의 중심 및 마을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동임대주택(공동홈) 조성, 빈집 활용 게스트하우스 조성, 골목형 전통시장 정비사업, 동문역사탐방로 조성 등이 함께 추진된다. 기반시설 확충 분야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골목길 정비사업, 주차장 확보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 생활SOC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생활편익시설 설치 분야로는 모양, 동촌, 천북, 동산 마을을 관통하는 등리로를 고창읍성과 모양성마을의 역사가 담긴 스토리텔링과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한 모양성 역사길 경관정비, 노후주택 정비사업, 스마트 보안등 및 CCTV를 고창군 스마트시티플랫폼(통합관리센터)과 연계하여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주민참여와 역량' 분야로서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주민카페 등 마을사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계획이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통축제 육성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괄센터(가칭:고창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도시혁신 청년대회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역량강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등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에 나선다.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역사와 문화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며 대상지의 주거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난해 열린 '정읍창의과학축전' 자료사진.

'과학으로 안전한 우리 집'

정읍창의과학축전, 15일 천변축구장서 열려

2018 정읍창의과학축전(이하 과학축전)이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정읍시 어린이 천변축구장에서 열린다. 과학축전은 정읍시, 전라북도 정읍교육지원청, 천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참여하고 살고있는생활과학 탐구회(회장 유승원)가 주관·운영한다. 올해로 열두 번째 열리는 과학축전의 주제는 '과학으로 안전한 우리 집! 신나는 대한민국!'이다. 주요 행사로는 미술공연을 비롯하여 33개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참여하여 운영하는 STEAM과학체험, 생활과학

체험 등이 있다. 또한 천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직접 참여하는 연구소 관련 과학 프로그램도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신장동 소재 3개 국책연구소와 함께 하는 과학축전은 청소년들이 과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국책연구소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실생활 중심의 과학 체험은 과학과 생활, 문화를 접목시켜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참여할 수 있어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하서면 새마을운동 단체가 잼버리공원을 중심으로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부안 하서면 새마을운동 단체, 잼버리 개최지 환경정화활동 펼쳐

2023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인 비록치 잼버리공원 및 주변을 부안군 하서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운동회 등 3개 단체가 지난 4일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새마을운동 3개 단체 30여 회원들은 잼버리공원을 중심으로 주변 하천에 방치된 생활·하천쓰레기 등을 수거 및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이 주도해 자율적인 청결활동에 나섰다. 더욱이 하서면 관내 단체들은 정기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잼버리공원 및 부안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하

고 아름다운 부안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참여자 또한 봉사를 통해 깨끗한 내 고향 환경을 조성했다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어 일거양득의 효과로 앞으로 더욱 확대 할 예정이다. 문숙자 하서면장은 "뜻은 날씨에도 자발적으로 부안군의 명소, 더 나아가 세계 명소가 될 잼버리공원 일원 환경정화활동을 위해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해 다시 찾고 싶은 하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각 정당, 발전 위해 '맞손'

정당 관계자 간담회 운영 주요현안사업 방향 논의

정읍발전과 정읍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읍시와 각 정당들이 손을 맞잡았다. 시는 5일 "정읍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각 정당 관계자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식적으로 각 정당과 함께 정책 관련 협의와 토론 자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일정으로 지난 5일 한병욱 정읍 지역 위원장을 비롯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의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진행됐다. 오찬을 겸한 이 자리에서 시에서는 유진섭 시장과 국·도비 확보 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 방향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공식적으로 각 정당과 함께 정책 관련 협의와 토론 자리를 마련한

시민 모두와 함께 정읍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기 위한 과정으로 정당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각 정당의 일정 등을 감안, 첫 번째로 정의당과의 간담회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각 정당의 일정하 허락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다"면서 "논의된 의견들은 농치지 않고 면밀한 검토 등을 거쳐 시정에 반영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위원장 등 정의당 관계자들도 "시와 정당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간담회가 민생문제와 같은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자리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의회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 촉구"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5일 고창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해상자치권 확립을 위한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는 7일 제258회 정례회에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밝혔다. 조규철 의장은 "그간 고창군과 부안

군의 해상경계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국가기본도를 근거로 구분되었지만, 국토지리정보원은 행정구역 명칭을 발표하고 오는 7일 제258회 정례회에 "고창바다의 합리적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밝혔다. 조규철 의장은 "그간 고창군과 부안

이에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고창군의 해상자치권을 확립하고 고창군 어민의 삶의 터전인 고창바다를 지키기 위해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 근거한 해상경계선이 획정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불합리한 해상경계에 대한 인식을 일소하고 고창군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해상경계 획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Mulberry Wine advertisement for Gangsanmyeongju. The ad features several bottles of wine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and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The ad also lists various gift sets with prices and includes a website URL: www.gangsanwine.com.